‘사랑의 불시착’ 현빈-손예진 웨딩마치…세기의 부부 탄생

현빈과 손예진 웨딩화보. /연합뉴스

장동건 축사, 거미·김범수·폴킴 축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 식장에 울려퍼져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서 비공개로 진행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란히 출연해 큰 사랑을 받은 톱스타 커플 현빈(40)과 손예진(40)이 지난 31일 결혼했다.

현빈과 손예진은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이날 오후 4시 결혼식을 올렸다. 2020년 3월 열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청첩장을 받은 하객들에게도 철통 보안을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빈의 오랜 절친인 장동건이 축사를 했으며 가수 거미와 김범수, 폴킴이 축가를 불렀다.

거미는 신랑 신부에게 의미가 큰 작품인 ‘사랑의 불시착’ OST로 아이유가 불렀던 ‘마음을 드려요’로 결혼을 축하했다.

이 외에 주례 등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애스톤하우스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철저한 보안 속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애스톤하우스는 이날 건물 입구에서 250m 정도 떨어진 차량 회차 지점에 임시 통제소를 설치했다.

‘출입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행사에 관련된 차량이나 관계자 이외의 입장을 막았다.

식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통제 구역에 일단 멈춘 뒤 창문을 내리고 출입자 명단에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곳에서 회차하는 차량도 여럿 있었다.

예식 시간인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결혼 축하를 위해 방문한 스타들의 차량이 속속 도착했다. 오후 3시 30분께부터는 신분 확인을 하느라 진입로에 차가 줄줄이 늘어서 입장이 지체되기도 했다.

참석 하객 명단에는 장동건·고소영 부부를 비롯해 배우 공유, 공효진, 김남주, 지진희, 차태현, 황정민, 하지원 등 톱스타들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손예진과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정해인과 안판석 PD, 현재 방영 중인 JTBC 수목 드라마 ‘서른, 아홉’에 출연 중인 전미도 등도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큰 관심이 쏠리는 톱스타 커플의 결혼식은 비공개라 해도 예식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이나 포토타임이 열리는 경우가 있지만, 현빈-손예진 커플은 모든 절차를 생략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출연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해외 팬들과 취재진도 이날 결혼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결혼식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자 현장을 찾은 팬들도 보기 힘들었다.

애스톤하우스는 대저택과 한강이 보이는 탁 트인 야외 정원이 특징인 예식장으로, 워커힐 호텔 경내에서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조용한 결혼을 원했던 심은하, 김희선, 신애, 지성-이보영, 션-정혜영, 주상욱-차예련, 배용준-박수진 등이 이곳에서 혼례를 올렸다.

현빈과 손예진은 2018년 영화 ‘협상’에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고, 이듬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다시 만났다.

앞서 두 차례 열애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사랑의 불시착’ 종영 한 달 뒤인 2020년 3월부터 약 2년간 교제해왔다고 밝혀 국내는 물론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을 비롯해 해외 팬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달에는 결혼을 공표했다. 손예진은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고, 현빈은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달 개봉 영화 ‘봄날’ 손현주 “연기하면서도 가슴 아파”

골칫거리 가장 호성 역 맡아

스크린과 안방을 오가며 선 굵은 연기를 선보여온 배우 손현주<사진>가 가족에게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가장으로 돌아온다.

영화 ‘봄날’은 한때 잘나가는 조직의 큰형님이었지만 현재는 집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철부지 장남 호성이 인맥을 모두 끌어모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으로 한탕 크게 벌이려다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다.

8년 만에 출소한 호성을 연기한 손현주는 30일 열린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가 맡은 호성은 동생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자식들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다. 손현주는 “연기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그는 “가슴 아파서 나온 호성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철부지처럼 보이고, 해서는 안 될 짓으로 보였겠지만 많은 것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며 “영화 후반부에 가면 같이 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돈구 감독은 “장례식장은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면서 인간 군상의 내밀한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이 영화적”이라며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축 처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막연하게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호성이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을 품는 건 가족들 때문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며 “가족 영화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또 “저예산 영화로 기획해 투자도 어려웠는데, 가능할까 싶었던 캐스팅이 원하던 대로 돼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손현주는 “감독이 말했듯 시작이 녹록지 않았고 배우들도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시작했다”며 “배우들도 감독도 모두 처음 만났지만,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호성의 동생 종성을 연기한 박혁권도 “처음 만났는데도 저번 주에 촬영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손현주는 “개봉을 기다리는 한국 영화가 100여 편이 된다고 하는데 4월에 개봉한다니 정말 행운”이라며 “많은 것들을 담았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혁권도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다”며 “빨리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 봄날에 저희 영화 ‘봄날’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문세 ‘발라드 축제’ 6월까지 11개 도시 공연

지난달 시작…전국 투어 재개

가수 이문세<사진>의 ‘발라드 축제’가 다시 막을 올렸다.

소속사 케이문에프엔디는 “이문세가 지난달 25~26일 열린 경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서울, 거제, 수원, 강릉 등 11개 도시에서 ‘2022 시어터 이문세’ 투어 공연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어터 이문세’는 이문세가 선보여 온 시즌제 공연이다.

보통 2년을 주기로 공연 콘셉트를 바꿔왔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이문세표 발라드 축제’를 주제로 했다.

이문세는 이번 공연에서 ‘광화문연가’, ‘옛사랑’, ‘사랑이 지나가면’ 등 대표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즉석에서 관객에게 신청받은 노래를 부르는 코너도 마련했다.

이문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태프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고 “공연장 안에는 우릴 기다리는 관객의 기대가 고취돼 있고 우리는 힘찬 ‘화이팅’과 함께 무대로 돌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978년 데뷔한 이문세는 꾸준한 음악 활동으로 대중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라디오 DJ, 방송 MC 등으로도 활동했으며 ‘알 수 없는 인생’, ‘붉은 노을’,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수많은 명곡을 발표해 왔다.

/연합뉴스